

여수 첫 청년몰 '꿈뜨락몰' 내일 개장



여수시의 첫 청년몰인 '꿈뜨락몰'이 중앙시장에서 12일 개장한다. 여수시는 지역 청년들의 열정과 꿈이 담긴 29개 점포가 오는 12일부터 중앙시장 2층에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청년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는 먹거리와 체험 공방 중심으로 운영된다.

가장 관심이 많은 먹거리 점포는 빵, 과일, 햄버거, 스테이크, 국수, 덮밥, 음료 등 19개 가게다. 허벅

사진관, 교복대여, 향초, 꽃, 미용실 등 서비스·판매 업종은 10곳이 운영된다.

중앙시장 2층에는 청년점포 외에도 느린 우체통, 회의실, 쉼터 등 상인과 고객을 위한 공동공간도 마련됐다.

청년상인들은 점포 운영과 함께 정기적으로 뮤지컬 공연 등을 하며 청년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꿈뜨락몰의 개장식은 12일 오후

중앙시장 2층서 29개 점포 운영 시작 먹거리·체험공방 등 즐길 거리 다양

4시 중앙시장 청년몰 무대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청년몰조성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은 시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본격화됐다.

2층 점포의 80%가 빌 정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중앙시장을 청년몰 운영과 함께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었다.

사업비는 국비 7억5000만 원, 지방비 6억 원, 자부담 1억5000만 원 등 15억 원이 투입됐다.

시는 공모 선정 후 청년몰조성사업단과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임점상인을 모집하는 한편 시장 리모델링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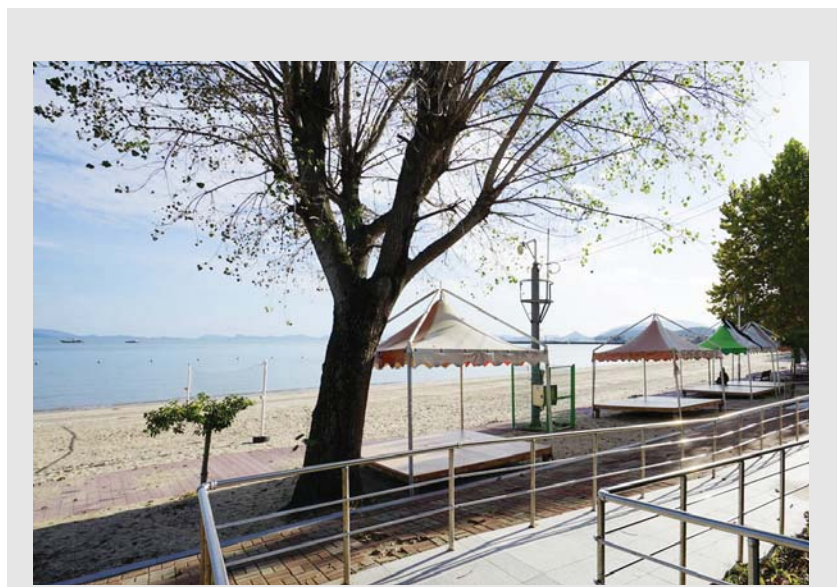
행된 임점상인 모집은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1차 모집인원 41명 중 최종 임점상인 29명은 8주간 창업교육과 현장 실습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청년몰 명칭인 꿈뜨락몰은 시민 대상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지난 4월 시 의견수렴 채널인 민사형통 앱을 통해 의견을 물은 결과 꿈뜨락몰이 365점, 368점 등을 앞섰다. 꿈뜨락은 공터의 의미를 가진 '뜨락'에서 '꿈'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꿈뜨락몰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이 녹아있는 음식을 맛보고 공방에서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다"며 "꿈뜨락몰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청년들의 문화가 공유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 수문해수욕장 개장 준비 '분주'

안전감시탑 설치·대규모 모래부설...내달 12일까지 운영

장흥군은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31일간 인양면 수문해수욕장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안전감시탑 2개소를 설치해 해상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해변에는 대규모 모래부설(9,600㎡)과 간이매점을 마련해 수문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을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개장 기간 중에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교육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장흥군과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해양구조협회와 강진소방서에서 해상구조대

대원 3명을 파견해,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한다.

13일 오전 10시에 있을 개장식 행사에서는 수문어촌계가 주관하는 개장기간 중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가 열린다.

강진소방서, 의용소방대,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익수자 발생 시를 대비한 합동 구조 및 구급훈련 시연회가 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문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과 안전시설 점검 및 방역활동을 통해 수문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군,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따른 방역활동 강화

예방접종 및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 강조

완도군은 최근 전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경보발령 기준이상으로 발견되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접종 및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집빨간집모기가 50마리 이상이면 전체 모기밀도의 50%이상일 때 발령된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어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

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모든 성인에 대해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 결과, 환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하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되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

군은 지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이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모기유충 서식지(고인물 등) 제거와 유충구제, 분무, 연막소독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기매개 감염병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외 활동 및 가정에서도 모기장 등 모기 회피용품을 사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우드랜드서 한방 아토피 안심캠프 개최



장흥군은 7월 5일부터 16일까지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2018 한방 아토피 안심캠프'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캠프는 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3개소 약 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캠프는 아토피, 천식 증상 및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과 실내 환경개

선, 알레르기 질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프로그램은 '아토피 비염 알아보기'와 우리 건강 지켜요' 강의, 아토피 예방에 좋은 파프리카 비누 만들기, 건강한 밥상 특산물 음식 체험, 깨끗한 공기와 놀이요 편백숲 체험 등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안심캠프를 통해서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알리고 예방수칙을 지켜 질환 유행률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민·판매장소·정문지침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진도군, 관광정책 역량 전국 최상위권

문체부,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 1등급

진도군의 관광 정책이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진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내 지역별 관광발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2017 지역관광 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 관광정책역량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역관광 발전지수 동향 분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발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지역관광발전지수 지표체계'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관광 발전 수준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관광 발전 지역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관광 수용력 ▲관

광 소비력 ▲관광 정책 역량을 3개 부문으로 나눠 지방자치단체의 수준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지역 관광 자가 진단 자료로 활용된다.

진도군은 관광정책사업과 관광분야 인적 역량, 홍보 정책,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진도군 관광문화와 관계자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발전지수 발표를 통해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 수요와 최근 관광 트렌드를 정확히 분석해 효과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